

야스민 26점 분전 허사...8연패 '늬'에 빠진 페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V리그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0-3(17-25 23-25 26-28)으로 패했다.

현대건설의 양효진과 위파위의 벽이 높았다. 페퍼스는 제대로 된 공을 던질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날 경기로 7연승을 기록한 현대건설은 56경기 승점35(11승 4패)으로 55경기 승점33(12승 2패)의 흥국생명을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반면 8연패 늬에 빠진 페퍼스는 승점6(2승 13패)로 최하위다.

이날 현대건설은 모마가 20득점, 양효진과 위파위가 각각 13, 10득점을 올렸다. 페퍼스에서는 야스민이 26득점, 이한비가 10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지만 블로킹에서 현대건설에 밀렸다. 페퍼스는 블로킹으로 3득점을, 현대건설은 14득점을 올렸다.

1세트에서 페퍼스는 리시브 호흡이 잘 맞지 않으면서 현대건설에 공격 찬스를 내주게 됐다. 지난 경기에서 수비 도중 하혜진과 어깨를 부딪으며 코트에서 빠져낸 박정아가 현대건설의 목적타 대상이 됐다.

초반부터 현대건설의 중심을 잡은 양효진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현대건설은 9-10상황에서 연속 6득점하며 점수 차를 단숨에 벌린 후 1세트를 쟁겼다.

페퍼스는 2세트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반등의 기회를 노렸다.

세트 후반까지 집중력 높은 모습을 보인 페퍼스는 22-22까지 따라잡았지만, 막바지 고비를 넘지 못했다.

모마의 오픈에 이어 정지윤의 블로킹 득점으로 현대건설이 세트포인트에 먼저 닿았다. 현대건설의 한 차례 실점으로 23-24 까지 점수차가 좁혀졌

통증 안고 땀 박정아 5득점 블로킹 득점 3 대 14로 밀려 현대건설에 0-3으로 완패 내일 GS칼텍스전 연패 탈출 노력

지만 정지윤이 속공으로 1득점을 더해 2세트도 현대건설의 몫이 됐다.

페퍼스는 3세트에서 변화를 줬다. 조 트린지 감독은 박사랑과 박정아를 빼고 이고은과 박은서를 세트 선발로 투입했다. 박은서의 서브가 잘 들어가며 초반에는 페퍼스가 리드를 잡았다. 박은서는 3세트에서 두 번의 서브에이스를 기록했다. 6-5, 긴 랠리 끝에 현대건설 모마가 백어택으로 페퍼스를 6-6 동점으로 따라잡았다.

3세트 후반에서는 듀스가 세 번이나 만들어졌다. 이한비의 목직한 공격으로 페퍼스가 세트포인트에 먼저 닿았지만 이어 때린 이한비의 공이 아웃되며 24-24 듀스 승부가 펼쳐졌다.

위파위의 공으로 현대건설이 25-24 매지포인트에 닿은 뒤 야스민이 다시 따라잡아 25-25를 만들어냈다.

이어 위파위의 공이 라인을 벗어나며 페퍼스가 26-25로 앞선 상황, 현대건설 이다현의 속공으로 26-26 세번째 듀스상황이 됐다.

현대건설 김다인이 페퍼스 박은서의 오픈 공격을 막아낸 뒤 현대건설 위파위가 킥 오픈에 성공하면서 긴장감 넘치는 접전이 끝이 났다. 페퍼스는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3세트를 모두 현대건설에 내어줬다.

한편, 8연패에 빠진 페퍼스는 15일 오후 7시 페퍼스체육관에서 GS칼텍스를 만나 연패 탈출을 노린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지난 12일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V리그 A페퍼스와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이한비(왼쪽)가 공격을 하고 있다.

(KOVO 제공)



박정아



오지영



야스민

페퍼스 박정아·오지영·야스민 V리그 올스타전 출전

김연경 3만9813표 최다 득표 올스타전 내년 1월 27일 개최

페퍼스 야스민, 박정아, 오지영이 V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2일 프로배구 2023-2024 V리그 올스타전 출전 선수와 팬 투표수 결과를 발표했다.

'배구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은 두 시즌 연속 V리그 올스타전 최다 득표를 받았다. 남녀부 통틀

어 가장 많은 득표수인 3만9813표를 얻은 김연경은 여자부 V스타 팀의 일원으로 올스타전을 뛰게 된다.

남자부 최다 득표자는 신영석(한국전력)으로 총 2만9031표를 받았다. 베테랑 미들 블로커 신영석은 4년 연속 남자부 최다 득표 1위를 차지했다.

광주 프로여자배구단 A페퍼스에서는 야스민, 박정아, 오지영 등 세 명이 선발돼 V스타팀에서 올스타전 무대를 밟는다.

야스민은 전문위원 추천으로 선발됐고, 박정아와 오지영은 팬투표로 올스타에 선정됐다. 박정아

는 2만3350표, 오지영은 1만9197표를 받았다.

올스타전팀은 직전 시즌 최종 성적을 바탕으로 K스타팀(1·3·5위), V스타팀(2·4·6·7위)으로 배정됐다.

이번 V리그 올스타전은 내년 1월 27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다.

한편, KOVO는 "이번 투표에서 동일 계정 중복, 부정 가입계정 이용 투표 등 일부 부정 투표 사례를 확인했다"며 "해당 투표는 최종 투표 결과 산정 시 제외하고 집계했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한국바둑, 중국 따돌리고 우승 확정

신진서·변상일 LG배 결승 격돌

한국바둑이 LG배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우승을 확정했다.

한국은 13일 신안군 증도 신안갯벌박물관에서 열린 제28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4강에서 신진서(23) 9단과 변상일(26) 9단이 중국의 커제(26) 9단과 미위팅(27) 9단을 각각 따돌리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형제 대결'을 펼치게 된 한국은 LG배에서 통산 13번째 우승을 확정했다. 중국은 12번, 일본 2번, 대만이 1번씩 LG배 우승컵을 가져갔다.

한국 랭킹 1위 신진서는 이날 관심을 모은 커제와의 대결에서 251수 만에 흑 1집반승을 거뒀다.

최근 커제를 상대로 6연승을 달린 신진서는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11승 11패로 균형을 맞췄다.

흑을 잡은 신진서는 초반 포석부터 앞서며 중반 한때 인공지능(AI) 예상 승률이 95%를 웃돌 만큼 확실한 우세를 보였다. 결정적인 순간 실착이 나와 커제에게 추격당하기도 했으나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지켰다.

신진서는 대국 후 "이번 LG배에 많은 걸 걸었는데 결승에 올라 다행이다. 오늘 바둑은 어려워질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가진 단점들이 나왔던 것 같다"며 "세계대회 결승은 항상 5대 5 승부라고 생각한다. 변상일 선수가 춘란배 결승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조심해야 할 것 같고 재미있는 대결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진서는 24·26회 대회에 이어 통산 세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LG배 결승에서 맞붙는 신진서(오른쪽)와 변상일. /연합뉴스

함께 준결승을 치른 변상일은 미위팅에게 174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한국 랭킹 3위인 변상일은 "초반에 잘 났으면 많이 앞서갈 수 있었는데 실수를 해서 어려운 진행들이 이어졌고 운 좋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다"며 "LG배 결승에 처음 오르게 됐는데 결승에 올라 기쁘고 신진서 선수가 올라와 한·한전이 돼 더 좋은 것 같다.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두 선수의 통산 상대 전적은 신진서가 32승 7패로 크게 앞선다. 결승에서는 6번 맞붙어 신진서가 5번 우승했다. LG배 결승 3경기 1국은 내년 1월 29일 열린다. 2국은 31일, 최종 3국은 2월 1일 예정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서울의 봄
- 2관 서울의 봄
- 3관 쏘우 X, 비밀
- 4관 서울의 봄, 바로로 극장판 슈퍼스타 대모험
- 5관 서울의 봄, 3일의 휴가
- 6관 서울의 봄
- 9관 3일의 휴가, 미끼
- 7관 씨네커피 말하고 싶은 비밀, 배트맨, 노 엑시트
- 8관 씨네커피 싱글 인 서울, 나폴레옹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2월)
 일시 : 2023-12-01(금) ~ 2023-12-22(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2023 달빛동행 교류공연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일시 : 2023-12-15(금) 19:30
 2023-12-16(토) 15: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2-2502